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누가복음 5장 1절~7절 강해 설교”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7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399장(새찬송 546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살펴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응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일렁이는 물결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을 부시게 하였습니다. 호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과 평원이 한데 어울려 그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 고기잡이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려 얼굴이 구릿빛 같은 어부 시몬 베드로가 형클어진 그물을 끌어안고 텅 빈 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화사한 아침, 눈부시게 반짝이는 호수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표정은 어둡고 우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배와 형클어진 그물,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몸과 공허한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맥 빠진 모습으로 걸어 나와 실의에 찬 모습으로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의 고기잡이를 위하여 어구(漁具)를 손질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

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찾으려고 살폈습니다. 호숫가에 빈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동네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하여 얼른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어느 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성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실로 엮힌 데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언뜻 들었지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압도적이어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것 봐, 잡은 고기가 없지 않아. 밤새껏 무엇을 하였기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가?”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자 무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차피 예수님을 자신의 빈 배에 모시게 되고 보니 예수님 바로 곁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마음이 착잡했으나 조금 지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어느덧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상기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세와 진실함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면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끝맺은 다음 베드로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린 지시는 어부들의 경험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밤바다에서 불을 밝히면 고기들이 몰려오지만 아침 해가 뜨면 배의 그림자만 보고서도 물고기들이 도망해 버립니다. 얕은 곳에서 그물을 밑바닥까지 내리면 혹 몇 마리 잡을 수 있으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허탕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베드로가 아는 바로는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였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랍비입니다.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문외한(門外漢)이십니다. 이런 분이 어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어왔고 더욱이 갈릴리에서 이름 난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잡이에 대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해변가의 무리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밤새껏 고기를 잡지 못하여 빈 배, 빈 그물인데 저런 이상한 지시대로 행하다가 허탕치면 망신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야!”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베드로를 주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저어 깊은 데로 나아갔습니다. 군중들은 뻔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숨죽이고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깊은 곳으로 나아간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당기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잡힌 고기를 보고 놀라

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경이로운 고기잡이에 관한 이야기는 흥미 본위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신령하고 심오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nevertheless at thy word I will let down the net.)”라고 한 대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중추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설명하는 핵심적 표현입니다. 인간의 사상, 철학, 각종 종교의 교리와 혼합된 복음은 변질된 것이며 혼잡하게 된 진리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이 아니며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이 참된 신앙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신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은 철두철미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에 의한’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이 기록된 책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한’ 신앙을 가진 신자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들을 함께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신앙을 가진 신자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된 기원(起源)에 대하여 사람들은 갖가지 억측과 주장을 합니다. ① “만유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요 환상에 불과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제임스 진스(James Jeans)는 그의 저서 ‘우주의 신비’에서 “현대 물리학적 개념에서 본다면 이 우주는 물질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니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만유는 저절로 발생했다.”는 자연발생 학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설명해 버립니다. 진화론도 여기에 속합니다. ③ “만유는 영원한 것이어서 그 기원이 없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④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에는 진화론만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만물의 기원을 목격할 사람이 없으므로 어떤 학설이든 모두 신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조론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몇 가지 논증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결과이며 따라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논리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을 과학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관찰하면 경이로운 질서와 조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정확한 법칙에 의해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와 조화와 법칙들은 우주 만물이 탁월한 지성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의 설계에 의한 작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처음 본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정교한 부품이 연결되어 있고 더욱이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모아 두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우연히 집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창고에 넣어두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우연히 자동차가 조립될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미세한 원자와 전자부터 광대한 우주와 천체까지 그 무엇이든 오랜 세월과 우연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계, 자동차, 컴퓨터 그 자체가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구상하고 설계하여 제작한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만드신 이가 계시고 그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논리적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창조신앙은 이러한 논증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임을 믿기 위해 그 증거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연구하고 논증한다고 하는 것이 바른 설명입니다. 폐일언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라는 '말씀에 의하여'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둘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신앙을 가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됨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다. 인간 창조에 관하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그리고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첫째, 신의식(神意識)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고 또 미신적 개념들로 혼잡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인류의 모든 종교는 종교 의식, 신(神)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보편적 신앙의 연유가 무엇입니까? "현명한 신학자들이 비밀리에 모여 하나님 개념을 만들어 이것을 사람들 앞에 내놓았다"라고 상상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별을 발명할 수 없고, 식물학자가 식물을 만들어 낼 수 없듯이 신학자가 하나님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확실히 고대인들은 천체에 관한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체에 관한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천체의 존재를 부정할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참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된 것은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피조물들을 섬김으로 우상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조차도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고 신(神)의식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종교의식(意識)' '신개념(神概念)'이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원숭이에게 종교를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것은 헛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갖가지의 신을 섬기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도덕적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습

다. 이를 '양심'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대 철학자 칸트는 말하기를 "나의 마음을 경외로 채워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들은 나의 머리 위에 찬란히 빛나는 별빛 하늘과 나의 속에 있는 도덕률이다." 하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종교적 본성과 도덕적 본성이 어두워지고 오염되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을 즐기는 자로 전락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극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변성하면서 여전히 그 조상들의 행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로마서 1장에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형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1~23).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과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존재가 멸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형벌도 영원합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과 노력도 죄 사함과 구원의 방책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구속(救贖)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하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이러한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만이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을 얻게 됨을 믿는 '구속신앙'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아니합니다.

셋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신앙을 가진 신자는 예배와 복음 전도에 힘쓰며 살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풍조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허망한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확고 부동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갖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하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이러한 '말씀에 의하여' 예배와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일을 경영합니다.

넷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신앙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은 시험과 환난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힘만 의지하면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한숨과 탄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소망적이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증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 23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이러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인한 최종적인 선과 승리를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에서의 핵심과 강조점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이 분명한 인식을 하도록 약간의 부연설명을 함으로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믿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nevertheless at thy word I will let down the net.)" 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로 번역된 성경 원어는 '에피 데 토 레마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번역된 원어는 이유, 근거를 가리킵니다.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결단한 '이유와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당신의 말씀(thy word 레마티 수)' 곧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오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시이므로 하기 싫지만 선생님의 체면을 고려하여 만부득이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오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지 표명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무한한 권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관한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하는 표현이 거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을 점령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의지하여'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의지하여' 메시아를 수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의한 창조신앙, 말씀에 의한 구속(救贖)신앙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예배와 복음전파에 힘쓰고, 말씀에 의한 소망적이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참되고 온전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승리와 행복은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요약할 수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